



2001년 12월 18일 LA에서 태어난 싱어송라이터.

2016년 SoundCloud에서 발표한 'Ocean Eyes' 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8월 EP 'dont smile at me' 를 발매했다. 친오빠인 피니어스 오코널(Finneas O'Connell)과 작곡 활동을 함께 한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드레이크, 얼 스웟셔츠, 빅 션, 차일디쉬 감비노, 오로라, 에이셉 라키, 라나 델 레이, 에이브릴 라빈 등의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2018년 11월 애플 광고 'Holiday — Share Your Gifts' 동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인 'come out and play' 등으로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이름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본명	빌리 아일리시 파이릿 베어드 오코널
국적	미국
출생	2001년 12월 18일
직업	싱어송라이터
데뷔	2016년 싱글 'Ocean Eyes'

원래 머리색은 금발이지만 백금색 청록색 은색 파란색 보라색 등 다양하게 염색을 한다. 푸른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에메랄드 빛을 띤 눈을 가지고 있다. 기타와 우쿨렐레를 연주할 줄 알며 키보드 연주도 가능하다고 한다.

BBC 선정 Sound of 2018에 노미네이트되었다.

2019년 3월 29일, 데뷔 정규 앨범 준 '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가 발매되었다. 14곡이 수록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 참고. 2018년 공개한 싱글 you should see me in a crown 도 이번 앨범에 수록된다. 사전에 공개되었던 앨범 수록곡 'bury a friend' 와 'wish you were gay' 도 함께 발매되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1964년 5월 26일 생.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이며,
어머니는 아프리카-아메리칸의 흑인인 혼혈이다.

레트로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며, 펑크, 락, 블루스, R&B, 사
이키델릭 록, 하드 록 등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을
한다.

이름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
본명	레너드 앨버트 크라비츠
국적	미국
출생	1964년 3월 26일
직업	싱어송라이터
데뷔	1989년 정규 'Let Love Rule'

음악 성향을 보면 알겠지만, "포스트 프린스"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수였다. 첫 앨범 Let Love Rule은 지금도 1980년대 명반으로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인 작으로 유명하다. 첫 앨범이 엄청난 대박이었기에 후작들이 평가절하당하는 기세고 약간의 굴곡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 오고 있는 중.

쉐보레 임팔라 광고에 쓰인 "It Ain't Over Til It's Over"이 유명하다.

영화배우로도 활동하는데, 헝거 게임 시리즈에 캣니스의 의상 디자이너 시나로 출연했다.

딸인 조 크라비츠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임모탄 조의 다섯 아내들 중 하나인 토스트로 등장했다. 여담이지만 조는 한때 마이클 패스벤더와 교제해 그의 여친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15년 슈퍼볼에서 케이티 페리와 함께 케이티의 곡 'I Kissed a Girl'의 록버전 합동무대를 펼쳤다.



Sting (스팅)



이름	스팅(Sting)
본명	고든 매슈 토머스 섬너
국적	영국
출생	1951년 10월 2일
직업	싱어송라이터
데뷔	1978년 더 폴리스 'Outlandos D' amour'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Curved Air'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던 스투어트 코플랜드가 무명 베이시스트 스팅을 만난 것이 밴드의 시작이었다.

Curved Air의 해체 이후 스투어트는 스팅과 함께 3인조 밴드 'The Police'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기타리스트 헨리 파도바니를 영입하여 3인 체제를 완성한다.

그렇게 활동하던 폴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프트 머신 등 여러 밴드를 전전하며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기타리스트 앤디 서머스를 만나게 되는데, 밴드 가입을 권유한 스팅에게 앤디가 '3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밴드에 가입하면서 현재의 폴리스가 완성 된다

처음에는 80년대 초 락밴드 The Police의 베이시스트이자 보컬로 리더로 활동하며 당시 락음악의 주류였던 뉴 웨이브를 선도하였다. <Synchronicity> 앨범을 마지막으로 그룹 해체와 함께 솔로 전향을 선언했다.

솔로 시절의 곡들은 뉴 웨이브를 벗어나 유폴피언 재즈, 보사노바 등의 영향을 받았고, 담백하고 서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스팅의 곡은 폴리스 시절의 Every Breath You Take 와 Englishman in New York, 영화 레옹의 OST로 사용된 Shape of My Heart, 그리고 런닝맨으로 유명해진 이광수 아웃'Saint Agnes and the Burning Train' 등이 있다.

